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4년도 표어 ☉

보혜사 성령이여 깨끗케 하소서(시51:10)

☉ 행동지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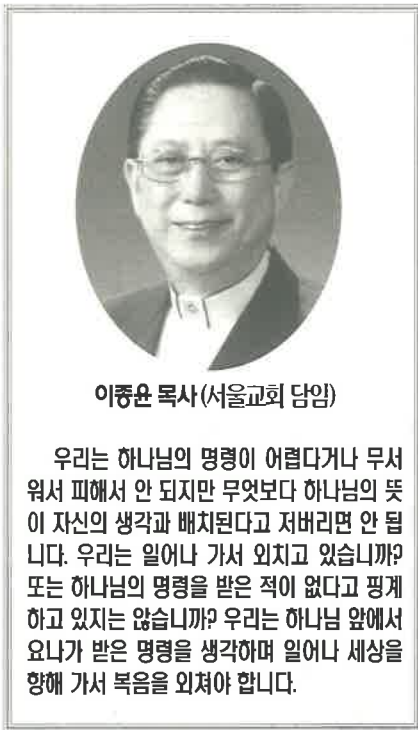
- 1. 바른생활
- 2. 바른교회
- 3. 바른국가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영혼의 양식 - 소신지서 강해

도망간 선지자

(요나 1장 1-3절)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역사에 확실히 존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간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고, 다시 부르셨는지를 말씀하는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사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을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질투의 감정까지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철저한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1.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요나의 표적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 12:39).

예수님께서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자신도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허구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믿을 때 요나서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주게 됩니다.

미국의 후랭크 가브레인 목사의 저서에는 4권의 선지서를 언급하면서 요나서를 역사적 사건으로 받기가 어려운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요나서는 너무나 초자연적이고, 유대인인 요나가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회개를 외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엘리사나 엘리야가 이미 이방인 다메섹과 사렘 땅에 가서 전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 이미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가 하면 니느웨에 대한 언급이 요나서에 과거형으로 나와 있는 것이 요나서를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니느웨가 터무니없이 큰 도시로 묘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론들은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나서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2.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준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인 니느웨에 회개를 재촉하셨습니다. 요나는 이미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고 심지어는 이방인 선원들까지도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준 것입니다.

편견과 미움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몇 사람에게만 한정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오늘도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마찰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와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1절).

여호와와 말씀은 요나의 주관적 사고와는 상관없이 객관적 계시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2절).

하나님의 명령은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세 가지로 임합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옴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3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는 ‘그러나’로 응답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지도에 잘 나타나지 않으나 대개의 학자들은 지브롤터 해협 건너편 스페인의 해안도시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니느웨와 정 반대편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엄청났기 때문에 사명에 압도되어 스스로 겁을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어야 가리지를 수 있고, 아이들의 수가 12만 명이었으며(은 4:11), 성의 높이가 100피트나 되는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성읍이 멸망할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

이 저들에게 회개를 외칠 때 사람들이 조롱할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또는 니느웨는 악독이 가득하고 피를 흘리는 성이라고 했으니(나훔 3:1-5) 그곳에 가기를 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구원 받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다거나 무서워서 피해서 안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배치된다고 저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 가서 외치고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받은 명령을 생각하며 일어나 세상을 향해 가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결국 변증학(Apologetic)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변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과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잘못 말할 때 그것을 중단시키고 확실한 진리를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회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피하여 옴바를 향하여 계속 밀려 내려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러나’로 불순종한 요나를 하나님의 ‘그러나’로 삼키셨습니다(4절).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옮기시기 위해 광풍과 큰 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04년도 안수집사 · 권사 선거 임박

서울교회에서는 매 격년 5월 마지막 주일에 안수집사, 권사 선거를 공동의회에서 실시하여 직분자들을 선출한다. 올해는 안수집사 50명 권사 40명을 선출키로 이미 연초에 당회가 결의한 바가 있다. 집사 및 권사 선출의 후보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집 사	권 사
자 격	나이	30세 이상된 남자	50세 이상된 여자
	신력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이상 경과 한 서리집사	입교인으로 흠 없이 7년이상 경과 한 서리집사
	성경	딤편 3:8~13절 해당자	
	모범	신덕이 있고 봉사에 모범된 자	
기타		1. 성경통독 수상자(소급) 2. 전도10명 이상자 또는 전도학교 이수자(소급 적용) 3. 정규 예배 출석자 4. 십일조 생활자 5. 봉사부서에서 섬기는 자 6. 열린 프로그램 한과목 이상 수료자 7. 안수집사(권사) 후보지원서를 제출한 자	
이행에 온 타교의 직분자		해당자로 본 교회 등록 1년 이상된 자	
임 명 제 차	추천	이상 요건에 맞는자를 당회가 심사하여 지원서를 받아 후보로 정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정한다.	
	결의	공동의회에서 1/2득표자 중 종다수로 결정	
	훈련	당회아래 6개월간 집사후보교육 후 당회고시를 거쳐 당회주관으로 집사 안수식	당회아래 6개월간 권사후보교육 후 당회고시를 거쳐 당회주관으로 권사 취임식

전도학교 8기생 수료와 9기생 모집

찬양예배 시 수료식 가지며, 3월 14일 9기 시작한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현재 전도학교 8기의 수료식을 갖는다. 장년 25명과 대청부 15명 등 40명이 수료하며, 수료 후 해당 목회 축호전도와 수요야간 및 토요일 전도대에 소속되어 배운바대로 활발하게 교회인근에서 전도활동을 펼치게 된다.

그 동안 이들은 주일 오후2시에 시작하여 30분간의 전도보고와 1시간의 교육을 받았으며, 대청부와 주일 교육이 어려운 분들은 토요일 저녁7시에 강의를 받고 실제 전도활동을 배워왔다. 교회는 작년도 전도학교 4기에서 7기까지 진행하여 총 99명이 수료하였으며, 올해도 4개 기를 연속 진행하여 교회 부흥과 세계선교를 향한 역량 있는 일꾼을 교회적으로 꾸준히 배출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주 14일에는 9기 전도학교가 시작되며 역시 장년 25명 대청부 15명 등 40명을 모집한다. 전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면 누구나 환영하며, 주일 교육받기 어려운 분들은 토요일 저녁7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에 참석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강의와 목회 축호전도와 수요 토요일 전도대에 합류하여 실제 훈련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많은 수료자들이 70인 전도대에 합류하여 인근 대단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방편 전도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관심 있는 성도들은 오늘까지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은혜로운 심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제심방이 한창이다. 은혜로운 심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심방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가정을 잘 정리하여 심방 받을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전화 코드는 잠시 빼두고, 음식 준비로 예매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심방감사헌금을 드리고자 하는 가정은 봉투 뒷면에 기도제목을 적어 미리 예매상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하여 기도시간에 기도제목과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한다. 깨끗한 예매상,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고, 심방 받는 가정 식구들은 목사님과 미주 있다. 준비된 심방으로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바란다.

2월 등록 새가족 환영회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2월 등록 새가족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감광국 강구배 강남영 강비혜 강순자 강혜령 고경순 김경철 김경희 김광래 김광일 김다현 김문영 김민욱 김민혜 김상업 김상희 김수진 김영엽 김옥 김옥실 김옥현 김원 김윤지 김은진 김은혜 김인재 김중우 김진성 김철훈 김필임 김혜연 김혜영 김혜옥 김효택 도정숙 도현경 문경태 문리영 문병권 문수경 문정원 문형민 민봉임 박동우 박미영 박민재 박상협 박선하 박성민 박성준 박성희 박예진 박원옥 박용수 박이수 박재미 박정우 박정인 박지민 박지은 박지혜 박지환 박진희 박철영 박형수 배광수 백승경 변선영 변일수 서정원 서창석 손철수 송민교 신흥철 심승심 심정심 찬안미래 안영자 안재용 안정옥 안혜경 양희도 염가현 염서현 염승렬 이상원 오윤호 오준호 우진 우충호 원종만 유대운 유성운 유은선 유채운 유충민 유혜재 윤재교 이규진 이규희 이덕재 이문형 이복순 이상범 이설빈 이소연 이순희 이영자 이계순 이주석 이진실 이진형 이지형 이하늘 이항미 이현숙 이혜경 이화진 이희영 전수진 전주현 정다을 정대영 정동영 정봉호 정자영 정주영 조경옥 조혜영 조현준 조현철 주민경 주연희 주호경 차승호 차정원 차주혜 최광호 최민영 최승아 최영주 최원형 최진영 최태경 허영재 한명자 한성진 한승준 한영숙 한재현 한정완 한정관 한홍섭 허경우 허지원 홍관희 홍명성 홍승현 홍승희 황은경 황지은 이상 165명



이웅선 원로장로

‘오늘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저를 향하여 ‘너는 순간순간 나를 부인하고 있구나’ 하시면서 사순절에 제 영혼의 잠을 깨워주

셨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찬탈할 때도 있었사옵고 교회에서 나만을 앞세울 때가 많았사옵고 소자에게 냉수한 잔 대접하기보다는 늙었다고 받기만 하였으며 주님의 종이나 성도들을 섬기기보다는 상좌에서 군림하려 하였습니다. 순간 순간 말씀에서 떠나 저의 삶의 안일과 탐욕만을 추구하므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으며 온유하거나

겸손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교만하여 목이 곧은 자이며 죄인 중의 괴수임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거하면서 공의로 행하셨사옵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섬김의 종으로 남은 순례자의 길을 마감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물으시었던 주님.

저희들도 주님께 쓰임 받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시며 서울교회 위에 주님의 빛을 찬란하게 비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

3.1절 공산독재 종식·민족복음화 목회자 금식기도 대성회 취재

우리로 공산독재종식을 목도케 하소서!



극심한 영적인 혼탁, 경제적인 침체, 국가 지도자들의 신뢰 실추, 혼란스런 사상으로 민족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현실에 방관할 수 없

어 한국의 목회자들이 발벗고 나섰다. 하나님의 꾸짖음을 자신의 꾸짖음으로 듣고 선지자적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3월1일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목회자 2천여명과 성도들이 우리교회에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회를 가졌다.

개회예배에서 이종운 목사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나라로 크게 다섯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영적인 나라, 둘째는 능력 있는 나라, 셋째 진리의 나라, 넷째 국제적인 나라, 다섯째 점진적 발전이 있는 나라였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그 완성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지만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비전을 받은 만큼 그동안 믿는 자로서 불신, 불의, 불충했던 죄를 회개하고 계속 이같은 나라로 발전하고 회복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김상철 장로(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장)는 지금의 우리 민족은 크게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나라를 살리고 통일까지 끌고 갈 주도세력이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의감이 실종되고 역사의식이 마비된 오늘날 한국사회를 꼬집으며 우리나라의 현실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에 무지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장로는 북한 김정일의 독재종식과 북한주민의 자유선거를 위해선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시점인 2008년 8월이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런 시급한 상황에 바로 교회가 희망임을 김 장로는 역설했다. 모이기를 힘쓰는 한국 교회가 민족사에 중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하자 자리에 모인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를 위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다.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정권의 현주소란 제목으로 특강에 나선 박용옥 장로(전 국방부차관)도 현재 미국주도의 단극체제적 국제질서 속에서 핵개발 기술 보유 가능성이 높은 북한이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갈지 갈림길에 서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도 반핵, 반김이나 민족공조를 명분으로 한 반미, 친김이나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밝혔다.

강연과 특강을 들은 목회자들은 민족의 현실과 북한의 현주소,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책무 등을 통감하고 한목소리로 통성기도에 매달렸다. 금식중에 진행된 목회자들의 기도회는 이 나라의 영적 혼탁과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에 대해 기독교인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를 공산집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복음화된 통일의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었다.

오후 2시까지 모든 순서가 진행된 뒤 참가 목회자 일동은 공산독재종식과 민족복음화를 위한 다섯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글: 김민철 사진: 유태서, 오주명(편집부)



2004 목회자 대성회 결의문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침체된 경제와 사회적 혼란과 국가 정체성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이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영적 혼탁과 정의감 상실과 양심마비에 기인함을 깨달으며 한국교회가 거룩과 성결을 잃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충했고 자기를 자랑했고, 보이지 않는 영이 아니라 보이는 육을 사모한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사랑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위에 은혜를 베푸사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공산주의 집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기적과도 같은 자유와 변영을 주시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므로 앞으로 북한의 동족도 공산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그 날 이 속히 임하여 우리와 함께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래의 소망을 확실히 가진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한국교회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구원할 영적 권능을

가지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과 섬기는 교회가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하도록 기도하는 모범을 보인다.

둘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한민국 재건교회 1948년 5월31일 제1차 회의에서 기도했던 전례에 따라 매년 5월 마지막 주일을 '국가기도주일'로 제정하고 한국교회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회개와 각성의 기도를 드리도록 제안한다.

셋째, 하나님의 통치와 영원한 적대관계에 있는 무신론과 우상 숭배의 공산독재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는 성경적 세계관을 분명히 한다.

넷째, 주님의 지상명령인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북한 신앙자유와 민주화 추진 기독교 연합'을 결성기로 하고 한국교회의 동참과 성원을 요청한다.

다섯째, 앞으로 한국교회에 회개와 각성의 영적갱신운동이 들 불처럼 일어나 우리민족이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큰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04. 3. 1
공산독재종식 민족복음화 3.1절 목회자 금식기도 대성회 참가 목회자 일동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너를 키우길 원하며...

김명미 성도(1교구)

며칠 전 무거운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 열어 보니 앞마당에서 캐신 봄둥이며 달래와 냉이가 한가득이고, 검정깨와 좁쌀, 참기름에 마늘과 된장, 양파까지 종합선물세트였다. 알고보니 친정 어머니가 보내신 것으로, 어느 것 하나 어머니의 손을 타지 않은 것이 없는, 당신의 마음 상자였다. 울컥하고 눈물이 흐르고 그리움과 보고픈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온 지 두 달째 접어든다.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운 서울 생활에서 언니는 내게 큰 힘이 되어주었고, 특히 이곳 서울교회를 소개해 주었다.

1월 첫째주일, 언니 손에 이끌려 서울교회와 인연을 맺은 나는 교회와의 인연도 감사한데, 종으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더욱 감사했다. 서울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의 가슴을 벅차게 하였고, 감동과 사랑으로 만나주셨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사셨던 친정어머니의 동행도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점쟁이, 무당, 보살까지 두루 벗삼아 지내시는 전형적인 불교신자여서 교회와는 거리가 먼 분이셨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나 또한 비슷한 종교생활을 해왔었다. 그런 어머니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 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꼭 하나님 믿어라! 나도 시골 내려가면 교회에 가마!"

나에게도 딸이 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 한 예쁜 지수. 키도 뚝어달라, 염색해 달라 조르는 딸이지만, 나는 네 나이에 맞게 생각하고 입고 가꾸는 게 제일 예쁜 거라고 단발머리만 몇년 제 고수시킨 보수적인 엄마이다. 그러나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지수에게 엄마로서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다. 지수의 엄마로서 나는 나의 어머니와는 달리 하나님 말씀으로 지수를 키우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로 교회를 찾는다.

아직은 신앙이 작디작아 두서없이 드리는 기도이지만, 지수야! 주님 보시기에 예쁜 지수와 엄마가 되자!



겨울 수련회를 마치고-신혼가정부·에바다부

주님의 예비하심에 따라

이재광 성도(신혼가정부, 4교구)

신혼가정부 수련회는 교회의 다른 어떤 부서들의 수련회 보다 주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이 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회원들은 태어난지 백일도 되지 않은 신생아에서부터 서너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며, 또한 임신한 부부도 있으니 우리의 의지보다는 주님의 은혜에 있는 정말 참석하기 힘든 모임입니다.

우리 가족 또한 신분상 군인인 나, 주말 부부로 생활하는 환경, 그리고 아직 5개월이 채 못되는 딸 예린이 등을 감안하면 주님이 항상 바라보시고 은혜 내려주심으로 참석할 수 있었고, 그분을 생각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휴가를 내어 퇴근 후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 본진과 함께 떠나지 못하고 나중에 우리 가족만 별도로 출발하여 어둠 속에 가려진 북한강의 얼마 남지 않은 겨울 풍경을 뒤로 하며 신혼가정부 겨울수련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성경퀴즈 대회 결선진출을 위해 참석한 각 가정의 경쟁이 치열하게 뜨거워 열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열띤 열에 가위 바위 보로 결선 마지막 티켓을 거머쥔 우리 가족은 앞으로 성경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어 준 성경퀴즈의 달인 옥종호 형제 가정에게 우승을 내어주고 다음을 기



약했습니다. 아직 관심과 신경을 많이 쏟아야 하는 아이들로 인해 신혼가정부 회원들 대부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편이었는데 마지막 전체 기도의 시간은 그 동안 부족했던 기도의 욕구를 마음껏 분출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출산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가족 외출이 신혼가정부 수련회인지라 집사람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딸 예린이도 큰 소란없이 조용히 첫날이자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아마 지난주 유아세례의 은혜가 상당히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날 교회 안에서만 교제하였던 신혼가정들과 신혼에 경험하고 겪었던 가정의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서로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어 의미있고 좋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조각목과 관련한 목사님의 말씀은 지금 가정을 막 꾸린 시점에서 저희를 성찰할 수 있어서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바쁘고 힘든 가운데 수련회를 알차게 준비한 신혼가정부 임원진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저희 눈과 귀를 열어주신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들께도 감사를 전하며 신혼가정부 모든 가족들 앞날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듭 났습니다

왕경의 권사(에바다부, 4교구)

에바다부 농인과 청년이 지난 2월29일 1박2일의 일정으로 온양에 있는 온양농아인 교회로 겨울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 이번 수련회를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은 건청인 부부가 목회를 하는 교회로 약 50명 정도의 농인들이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개회예배의 주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친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깊이 알게 되고 하나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세족식을 갖으며 참여한 목사님과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서로를 높이고 위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주님의 겸손과 사랑을 배웠습니다.

비록 2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수련회 기간

동안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용서와 화해의 기쁨을 누리며 거듭남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4기 단기선교팀 지원자 모집

전도위원회(선교부)는 금년 8월2일(월)부터 12일(목)까지 10일간 방글라데시를 단기선교대상국으로 정하고 지원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3월8일(월)부터 4월11일(주)까지이며 단기선교팀은 4월부터 4개월간 집중적인 훈련을 받아 파송하게 된다.

교회학교 운영, 의료봉사, 선교봉사와 개인전도에 달란트가 있는 성도들의 지원을 바라고 있으며 이번 선교팀의 단장으로는 오정수 장로가 임명되었다. 신청서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다.

상담부를 아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담부

최익인 장로(상담부 부장)



상담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열매를 추구하는 부서입니다. 상담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세우고 슬퍼하는 자를 안아주며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작업입니다.

우리 교회 상담부는 법률, 세무, 병무, 의료, 교육 가정, 결혼 등 7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분야마다 전문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특별히 가정 상담은 수요일부 예배가 끝난 후 가능합니다.(장소:310호)

현재 병무 상담팀은 비전 2020운동과 더불어 군에 입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병영 생활을 보다 복음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특히 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상담은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해외단기선교팀과 연계하는 일을 하고 결혼상담은 우리교회 뿐만 아니라 타교회 상담팀과 연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담부는 구원을 주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울 것이며 해결사가 아닌 동반자로서 상담을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일에 오셔도 상담이 가능하지만 미리 예약을 하셔도 좋습니다(예약 전화번호는 019-376-3892).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이번 학기 매주 화요일에 장신대 신대원에서 강의한다. 11일(목) 비전2020운동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 득남: 안유석, 홍정화성도(3교구), 3월 27일
- 양정화성도 '모녀춤' 공연 3월 10일 7:30, 국립국악원 예약
- 주간 식당봉사: 루디아여전도회(3월7일) 비비아전도회(3월14일)
- 금주의 식사: 김형신 성도(현기옥 집사) 가정/교회보조 (범사에 감사하며)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162(기독교방송) 매주 수 오전 7시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LKY 98.1 MHz(극동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기독교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기독교 TV - http://www.cts.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제12차 김치 신학세미나에 초청된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월남의 교역자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자녀들을 위하여
3. 온 교회 성도들이 주일학교 학생이 되고 전도대원이 되도록
4. 서울 성경대학, 주부대학, 경로대학, 열린 프로그램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